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5



▶한줄요약
아쇼까왕은 즉위 37년 71세로 숨을 거두었다. 임종 전에 잠부띠바 전체를 승가에 보시하겠다는 아쇼까왕의 유언은 삼빠딘이 곧바로 묵살해버렸다. 그런 뒤 삼빠딘은 극적으로 중병을 극복하고 복귀한 늙은 라다굽따 수상의 도움을 받아 마우리아국의 제왕에 올랐고, 잠부띠바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쇼까왕, 최후의 식사마저 보시하다

아쇼까왕 일행이 룸비니를 순례한 몇 년 뒤 아상디밋따가 눈을 감자, 정비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띠쉬아락시따가 차지했다. 꾸날라의 아들 삼빠딘은 분노가 치밀었다. 빠딸리뿌뜨라성을 벗어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차라리 아쇼까왕이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참배하러 갈 때 따라가서 그곳에 정착해 살기를 바랐다. 아쇼까왕은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참배하고자 순례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띠쉬아락시따는 기회가 왔다고 별렀다.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아예 없애버릴 적기라고 생각했다. 띠쉬아락시따는 한밤중에 친위대장을 정비별궁으로 불렀다. 어둠과 짙은 안개 때문에 몇 걸음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한밤중이었다. 친위대장은 약속 시간보다 더 빨리 정비별궁의 다실에 와 있었다. 띠쉬아락시따는 통금시간을 알리는 망루의 종소리를 들은 뒤 다실로 왔다. 궁녀들이 과일과 짜이를 들고 들어왔다가 곧 나갔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대장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가요? 대왕님이 도착하기 전에 뻡팔라나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침 제가 삼보디로 순행을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뒤 대왕님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나는 대왕님께서 나보다 뻡팔라나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친위대장은 띠쉬아락시따가 어리석고 질투심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금은보화를 계산했다. 삼보디의 뻡팔라나무만 없앤다면 띠쉬아락시따가 자신에게 크나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옥리 마땅가는 주술을 할지 압니다. 마땅가는 옥주가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의 야망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타기리가는 아쇼까왕이 즉위한 뒤부터 옥주를 맡아왔으므로 물러가는 그의 자리를 욕심내는 옥리들 중에 마땅가도 한 사람이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정비님께서 직접 마땅가를 불러 지시하시면 그는 더 분발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데리고 오세요."

"마땅가를 삼보디 순행군사로 차출한 뒤 보내겠습니다."

다음날부터 친위대장은 삼보디로 순행할 군사를 지원받고, 또 차출해서 강가강 모래밭으로 나가 훈련을 했다. 며칠이 지난 뒤였다. 띠쉬아락시따를 만나고 온 마땅가는 더욱더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다. 자신의 출세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명했다.

"삼보디 순례는 규모가 가장 클 것이오. 왕궁이 텅 빌만큼 왕비들과 귀족들, 신하들과 대장들, 아쇼까라마 사문들이 함께 할 것이오."

"저는 삼보디에 먼저 순행을 가서 대왕님께서 참배 오실 때까지 뻡팔라나무를 돌보고 있겠습니다."

"대장, 그렇게 하시오."

친위대장은 삼보디로 순행가기 전날 밤에 또 띠쉬아락시따를 정비별궁에서 만났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마땅가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방법을 말했어요."

"뻡팔라나무를 어떻게 없애겠답니까?"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독 묻은 실로 뻡팔라나무를 묶은 뒤 주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뻡팔라나무가 곧 시들어 죽는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번에도 우두머리 궁녀의 귀에 들어갔다. 다실에 과일과 짜이를 날랐던 어린 궁녀가 너무 놀란 채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해가 뜨고 나서야 우두머리 궁녀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어린 궁녀에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자신은 기회를 보아 삼빠딘을 만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우두머리 궁녀는 두 사람의 음모를 삼빠딘에게 바로 전하지 못했다. 띠쉬아락시따가 우두머리 궁녀에게 정원 일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궁녀들을 데리고 정원의 꽃나무 가지치기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것이다. 우두머리 궁녀는 하루 종일 젊은 궁녀들과 함께 꽃나무 가지치기를 했다. 이후에도 우두머리 궁녀는 삼빠딘을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한 달 간 특별휴가를 받아 베샬리를 다녀왔던 것이다.



아쇼까왕의 대규모 순례단이 삼보디로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 삼빠딘이 뒤늦게 우두머리 궁녀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을 때였다. 우두머리 궁녀가 쭈뼛거리며 실토했다.

"대장님, 말씀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오?" "정비님과 친위대장님이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죽이려고 합니다. 친위대장님은 주술을 하는 옥리 마땅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쯤 뻡팔라나무가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비님과 친위대장 사이를 눈치는 채고 있었소만."

삼빠딘은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대장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는 짓은 늘 음모였소. 그러니 놀랍지 않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왕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삼보디 뻡팔라나무가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오."

삼빠딘은 뻡팔라나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뒤, 띠쉬아락시따와 친위대장의 음모를 아쇼까왕에게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순례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들뜬 아쇼까왕은 자신이 소유한 황금과 금전을 가능한 한 많이 챙겼다. 삼보디 사원에 보시하고 대규모 순례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띠쉬아락시따도 정비가 된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아쇼까왕의 삼보디 순례단이 떠나는 날이었다. 삼빠딘은 선봉대장을 자원했다. 기마부대장 못지않은 승마 실력 때문에 순례단보다 사흘은 빨리 도착해 삼보디를 수색하고 정찰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옥주 전타기리가를 순례단에 참가시키자는 삼빠딘의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삼빠딘은 선봉부대를 기마군사로만 편성하여 지체 없이 빠딸리뿌뜨라를 떠났다. 삼보디는 바라니시와 달리 배를 이용할 수 없었다. 말을 타고서 남쪽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수심이 얕은 네란자라강을 건너면 삼보디에 이르렀다. 삼빠딘의 선봉부대는 밤늦게 야영을 하고 낮에는 바람처럼 내달렸다. 삼빠딘의 머릿속에는 삼보디의 뻡팔라나무만 어른거렸다.

마침내 삼빠딘의 선봉부대는 한낮에 삼보디에 도착했다. 삼보디 주민들은 뻡팔라나무에 접근을 못한 채 수심어린 얼굴들을 하고 다녔다. 친위대장이 아쇼까왕이 참배 온다는 이유로 뻡팔라나무에 다가가지 못하게끔 금족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삼빠딘은 아쇼까왕의 특명을 받은 선봉대장으로서 그곳의 경계군사를 물리치고 들어갔다.

과연 뻡팔라나무 푸른 이파리들이 노랗게 변해 땅바닥에 수북이 흩어져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병든 것처럼 하나같이 시들시들했다. 상가밋따가 왔을 때만 해도 새들이 날갯짓을 하고 날아다녔는데 단 한 마리의 새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친위대장과 마땅가가 삼빠딘에게 다가왔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뻡팔라나무가 말라가고 있소. 이유를 모르겠소.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간 순행대 조장에게 이런 사실을 대왕님께 자세히 보고하라고 조치했소."

"순례 오시는 대왕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장께서는 여기 남았군요."

"이곳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이곳 사원의 사문들과 주민들을 모두 내보냈소."

삼빠딘의 쏘아보는 눈길에 마땅가는 안절부절 못했다.

"알겠소. 선봉부대는 오늘부터 여기서 야영을 하겠소."

"사원이 비었으니 숙소로 이용해도 되오."

친위대장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지 돌아서려 했다. 순간 삼빠딘이 선봉부대 군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선봉부대 군사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친위대장과 마땅가를 체포했다. 선봉부대 조장과 미리 짜놓은 작전이었다. 친위대장과 마땅가는 손발이 묶인 채 사원 창고에 갇혔다. 그날 밤 삼빠딘은 마땅가를 불러내 심문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뻡팔라나무를 죽이려고 했는지 말하라. 뻡팔라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말하라."

마땅가는 의외로 겁이 많았다. 온몸을 벌벌 떨면서 띠쉬아락시따와 친위대장의 소행을 다 털어놓았다. 더 심문할 것도 없었다. 삼빠딘은 마땅가를 사원의 기도실에, 친위대장은 사원의 창고에 아쇼까왕이 올 때까지 가두었다. 마땅가에게는 날마다 짜파티 세 장과 물을 주었지만 친위대장에게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꾸날라를 참혹하게 만든 조력자이기 때문이었다.

삼빠딘은 선봉부대 조장과 함께 뻡팔라나무를 감은 흰 천을 풀었다. 흰 천을 벗겨내자 뻡팔라나무 껍질을 도려낸 자리에 독 묻은 실이 보였다. 선봉부대 조장은 칼로 뻡팔라나무를 친친 감은 실을 제거했다.

사흘 후. 마침내 아쇼까왕의 대규모 순례단이 삼보디에 도착했다. 아쇼까왕이 탄 대왕코끼리 뒤에 수백 명의 일행이 거리를 걸어 들어오자 삼보디는 뿌연 흙먼지로 휩싸였다. 삼빠딘은 대왕코끼리 앞에서 뻡팔라나무까지 인도하면서 사실대로 다 보고했다. 아쇼까왕이 분기탱천했다.

"아무도 내 분노를 막지 못하리라!"

아쇼까왕이 말라죽어가는 뻡팔라나무를 보더니 비틀거렸다. 그러자 젊은 왕비 두 명이 가까이 다가와 부축했다. 아쇼까왕이 너무 괴로워하자 뒤에 있던 한 장로가 소리쳤다.

"대왕님이시여! 뻡팔라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물을 주면 살아날 것입니다."

"오,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바로 수천 개의 항아리를 보시할 것이오."

삼빠딘은 아쇼까왕이 임시군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찾아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친위대장과 옥리 마땅가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난 그 자들을 보기도 싫으니 삼빠딘이 처형하라. 다만 이곳은 붓다의 성지이니 1요자나 밖으로 데리고 가서 처형하라."

"예, 알겠습니다."

"띠쉬아락시따 정비도 삼빠딘이 처리하라."

"정비님은 옥주 전타기리가에게 맡기면 어떠하겠습니까?"

삼빠딘은 자신의 칼에 띠쉬아락시따의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전타기리가라면 그가 즐기는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처리할 터였다.

"내 명이다. 전타기리가에게 띠쉬아락시따를 체포해 알아서 처형하라고 전하라."

삼빠딘은 지체하지 않았다. 친위대장을 1요자나 밖으로 끌고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선봉부대 조장이 시신의 사지를 찢어 날아온 독수리들을 향해 던졌다. 마땅가는 전타기리가가 군사 몇 명과 함께 빠딸리뿌뜨라 지옥궁전으로 압송했다. 그런 뒤 띠쉬아락시따를 아담한 집에 넣고 아교로 문을 봉한 뒤 불을 질러 화형에 처했다.

한편, 띠쉬아락시따가 화형을 당하는 동안 아쇼까왕은 한 장로의 말대로 뻡팔라나무에게 밤낮으로 네란자나강 강물을 수 천 개의 항아리에 담아와 부어주었다. 순례단의 왕비와 귀족과 사문들이 항아리 한 개씩을 들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자 며칠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뻡팔라나무 이파리들이 싱싱하게 되살아났고, 비로소 새들이 몰려와 우짖었다.

"추나르에서 온 호위부대 조장은 들으라. 조장은 즉시 산치로 내려가 탑에 이 사실을 조각하라."

아쇼까왕은 뻡팔라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담장을 당장 치게 했다. 담장이 완성되자 아쇼까왕은 신하들과 함께 직접 항아리를 들고 뻡팔라나무에 물을 주는 의식을 치렀다.

몇 달 후.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아쇼까왕은 뻡팔라나무의 회생을 기념하는 무차회를 열었다. 산치에서 돌아온 목갈리뿟다띳사, 상카시아를 순례한 우빠굽따, 니그로다, 악기브라흐마 등이 참석했다. 무차회에는 황색 가사를 수한 사문과 장로 30만 명이 모였는데, 3분의 1은 아라한 장로들이었고 3분의 2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문들이었다. 30만 명이 빠딸리뿌뜨라에 모이자 성은 숫제 황색으로 변했다. 아쇼까왕은 기쁜 나머지 막대한 재물을 또 승가에 보시했다. 아쇼까왕의 보시는 끝이 없었다. 아쇼까왕은 1백 꼬디의 금을 승가에 보시하겠다며 기회가 되는 대로 내놓았다.

그러나 아쇼까왕의 보시는 삼빠딘이 왕권을 빼앗아버림으로 해서 끝났다. 삼빠딘이 병석에 누운 아쇼까왕의 금접시와 은접시 한 개씩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렸던 것이다. 삼빠딘은 할아버지 아쇼까왕에게 품었던 원망을 그렇게 풀었다.

아쇼까왕은 보시할 재물이 없어지자 두 개의 접시도 아쇼까라마 주지 야샤스 장로에게 보냈다. 뿐만 아니었다. 아쇼까왕은 병석에서 식사로 반 조각의 아말라까 과일을 받았는데, 그것마저 야샤스 장로에게 보시했다. 이에 야샤스는 아말라야 과일 반 조각을 갈아서 국에 넣어 모든 사문과 장로들이 보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침내 아쇼까왕은 즉위 37년 71세로 숨을 거두었다. 임종 전에 잠부띠바 전체를 승가에 보시하겠다는 아쇼까왕의 유언은 삼빠딘이 곧바로 묵살해버렸다. 그런 뒤 삼빠딘은 극적으로 중병을 극복하고 복귀한 늙은 라다굽따 수상의 도움을 받아 마우리아국의 제왕에 올랐고, 잠부띠바의 상속자가 되었다. 〈끝〉

해양심층수 미네랄을 담은 깨끗한 MQ 눈소금

매일 매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수 미네랄 섭취, 모든 음식에 넣어먹는 소금으로 챙기세요.



세트구성 52,000원
150g×2, 125g×1=425g

◆ 엠큐 ◆
눈소금세트





"해양미네랄이 들어있는 엠큐눈소금"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로를 사용,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미네랄 섭취를 위해 따로 미네랄 제재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 엠큐눈소금으로 지키세요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